

‘비수기 공식 됐다’… AI·전장 수요 힘입어 고부가 전략 성과

삼성전기·LG이노텍

4분기 실적 ‘두 자릿수 성장’ 전망

제품믹스 개선에 수익성 방어 강화
산업·모빌리티 비중늘려 체질 전환
로봇·SDV 등 신사업 확장 가속

삼성전기와LG이노텍이 4·4분기의 전
통적 비수기 공식에서 벗어나 성장 흐름
을 지속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. 인
공지능(AI)·전장 수요 증가가 실적을 뒷
받침하고, 양사의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사
업 전환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.

15일 업계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
삼성전기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컨센서스
를 2조8336억원, 영업이익 2245억원으로
제시했다. 매출은 전년 대비 13.7% 늘고
영업이익은 95.2% 증가한 수치다. LG이노
텍의 같은기간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7조
6010억원, 영업이익 3642억원으로 집계
됐다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
이 각각 14.7%, 46.9% 늘어난 수치다.

삼성전기는 지난해부터 실적 성장세를
이어가고 있다. 1분기 영업이익 2005억원,
2분기 2130억원, 3분기 2603억원으로 분
기마다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. 이러
한 배경에는 적층세라믹콘덴서(MLCC)



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.

/삼성전기



LG이노텍 광주사업장 전경.

/LG이노텍

사업에서 IT용 대신 고부가 제품인 산
업·전장·AI 서버 공급을 확대하며 안정
적인 수익원을 창출한 점이 꼽힌다.

LG이노텍은 1분기 영업이익 1251억원,
2분기 114억원, 3분기 2037억원을 기록하
며 분기별로 변동 폭이 컸다. 2분기에는
비우호적 환율과 미국 정부의 관세 불확
실성에 따른 전분기 선구매 수요 등이 실
적에 악영향을 끼쳤다. 다만 3분기 들어
제품 수요 확대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.
특히 하반기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17 시
리즈의 수요 호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
서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.

이러한 실적 반등세에 힘입어 4분기
에도 양사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

전망된다. 전자부품 업계에 4분기는 통
상 비수기로 불리지만 원·달러 환율 상
승과 AI, 전장 등 고부가사업 전환이 실
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
평가된다.

아울러 양사는 미래 먹거리 확보에도
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. 기존 사업 포
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신사업 분야 확장
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. 삼성전기는 피
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확
장하고 있다. MLCC, 플립칩 볼그리드
어레이(FC-BGA) 등 주력 기술을 기반

으로 로봇·AI용 핵심 부품 공급을 늘리
겠다는 방침이다. 최근에는 휴머노이드
관련 기업들과 카메라 모듈, MLCC, 기
판, FC-BGA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
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LG이노텍 또한 모빌리티 사업을 미
래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. 최근에는
광주사업장에 1000억원을 투자해 차량
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(AP)모듈 생
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. AP모듈은
자동차에서 ‘두뇌 역할’을 하는 핵심 부
품으로 소프트웨어중심차량(SDV) 보급

이 확대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
이에 LG이노텍은 관련 제품의 생산 역
량을 확대해 전장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
다는 방침이다.

업계 관계자는 “부품업계 전반에서 제
품 믹스 개선과 AI 수요 확대가 이어지
면서 FC-BGA를 비롯한 고부가부품 비
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차
세대 AI 가속기 출시 로드맵에 따라 관
련 수요도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
이 크다”고 말했다.

/차현정 기자 hyeon@metroseoul.co.kr

車수출 720억달러 ‘역대 최대’ 친환경·하이브리드 성장 견인

산업부, ‘2025년·12월 車산업 동향’
대외 불확실성에도 3년 연속 선방
북미 감소, EU·아시아 두 자릿수 ↑
중고차 88.7억달러 ‘사상 최고치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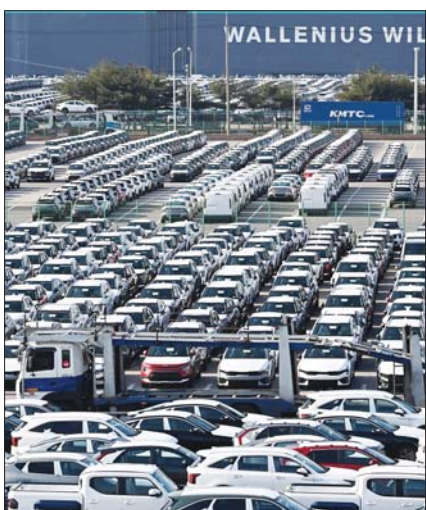
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
720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
달성했다.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미
국의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속
에서도 3년 연속 700억달러를 웃도는 성과
를 냈다.

친환경차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성과
를 견인했다.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액은
258억달러로 전년 대비 11% 증가했다.
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이 148억달러
로 30% 급증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
다. 중고차 수출 역시 88억7000만달러로
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.

15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‘2025년
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’에 따르면 지
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1992대로
전년 대비 0.6% 감소했지만, 3년 연속
400만대 생산을 유지했다. 내수 판매
는 168만110대로 3.3% 늘어난 반면,
수출 물량은 173만6308대로 1.7% 감
소했다.

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719억9100만달
러로 전년 대비 1.7% 증가했다. 이 가운
데 친환경차 수출액은 257억6700만달러
로 11.0% 늘었고, 자동차부품 수출은
212억300만달러로 5.9% 감소했다.

차종별로 보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
56만1678대로 전년 대비 30.1% 증가했
다. 전기차는 26만1974대로 0.3% 줄었



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
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. /뉴시스

고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5만729대로
5.4% 증가했다.

지역별 수출액은 북미가 357억700만
달러로 10.8% 감소했고, 이 중 미국은
301억5400만달러로 13.2% 줄었다. 반면
유럽연합(EU)은 96억7800만달러로
20.1% 증가했으며, 기타 유럽(62억6100
만달러·30.5%), 아시아(77억5400만달
러·31.9%) 등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
록했다. 중동은 53억700만달러
(2.8%), 중남미는 30억6900만달러
(9.9%), 오세아니아는 36억4900만달러
(0.6%), 아프리카는 4억7400만달러
(18.4%)로 집계됐다.

기업별 생산량은 현대자동차 184만
6274대, 기아 159만7340대, 한국지엠 46
만826대, KG모빌리티 10만6137대, 르노
코리아 8만4185대, 타타대우 7230대 순으
로 나타났다.

/세종=한용수 기자 hys@

썰매타러 영양가자!



영양 공공겨울축제 마스코트 풍순이, 풍식이

제3회

영양공공겨울축제

2026. 1. 9.(금) ~ 1. 25.(일)

영양읍 현리 빙상장

얼음낚시터 운영

– 공공 언 얼음속에서 팔딱거리는 빙어를 잡아올리는 짜릿함.
기다림의 소중함을 직접 느껴보세요.

빙상장 운영

–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반변천에 자연이 만든 천연 빙상장에서
한겨울 추위를 날려 보내요. 물론 스케이트는 공짜로 빌려드립니다.

얼음썰매 타기

– 스케이트는 아직인 어린이들은 안전한 썰매를 타세요. 아빠가 뒤에서
열심히 밀어드립니다.

얼음열차 운행

– 칙칙폭폭 신나게 달리는 얼음열차로 추위를 날려 버립니다.

눈썰매장 운영

– 인공으로 조성된 대형 눈썰매장에서 스릴도 느껴보고,
겨울바람과 맞서 보세요. 더 없이 좋은 추억이 됩니다.

스릴만점 회전눈썰매

– 빙빙 회전하는 기구를 이용해 눈썰매를 탑니다. 재미 백배입니다.



주최 영양군
YEONGYANG-GUN

주관 영양군체육회
YEONGYANG SPORTS COUNCIL